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둘러싼 여러 시선들

국가 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모델 창출을 위해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지난 3월 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발효되었다. 2023년까지 광주를 차별화된 문화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이 사업은 아직 시작단계며, 문화예술품을 키워드로 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규모와 가치가 가져올 파급효과와 사업 진행에 뒤따르는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통해 이 사업의 방향성과 현재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리 차선아, 이해정 본지 편집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진중권
사회, 미학자

김경주
동신대학교 문화기획학과 교수

이필훈
건축가,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지형원
언론인,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

일시 장소

2007년 4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4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회의실



왼쪽부터 차례로 언론인 지형원, 미학자 진중권(사회), 건축가 이필훈, 문화기획학과 교수 김경주.

랜드마크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진중권 오늘 이 자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시아문화전당의 지하화를 둘러싸고 부각된 이른바 ‘랜드마크 논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형원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 2003년 1월 27일 광주에 와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제가 광주시 대표 질의자로 나가서, 문화발전소를 하나 짓자고 하면서 빌바오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모델’입니다. 전남도청이 옮겨감으로써 생기는 도심공동화의 극복 사례 중 하나로 예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좋

은 아이디어 줘서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인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서 이루어진 국민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은 도시 리모델링, 도심공동화 극복 사례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지하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이미 심사규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습지만, ‘사선의 높이가 얼마를 넘지 않을 것’ 등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조건들을 충실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하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계공모를 할 때부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오히려 겸손하게 밑으로 절개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봅니다. 이에 대다수가 동의하는데, 언론인들이 ‘지하화’나 ‘벙커’라며 설계변경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그동안 설계 당선작 혹은 기능에 대한 설명회, 용역보고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이 참여해서 여러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을 보완해야 한다, 공연장이 있어야 한다, 일부 랜드마크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일부 의견으로 치부되어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시민이 불끈 일어섰다고 봅니다.

하나 또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이 확정되고 설계공모를 했나 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소를 키울지, 토끼를 키울지를 정해놓고 짓는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갖고 설계를 맡기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설계공모를 하다보니까

서둘러지고,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시민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김경주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논점을 잡겠습니다.

김경주 다소 다른 각도의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가 직접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 600명에, 언론인과 문화예술인 응답자 45명으로 했는데, 이 645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645명 중 아시아문화전당 지하화 관련해서 긍정치가 60% 이상입니다. 이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대학 교수분들이나 문화예술 종사자들 역시 긍정적입니다.

진중권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김경주 열 분 정도 됩니다. 언론사, 현직 언론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이후 광주사회의 메인스트림이랄까 정신적인 부분은 역시 5월이라고 봅니다. 그간 5·18기념재단 등에서는 기억의 저장소로서의 도청, 전당, 상무관, 분수대, 이런 것들이 가급적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제안됐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것은 오히려 겸손하게 밑으로

김경주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신대학교 문화기획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신대학교 박물관장, 사단법인 시민문화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국 현대 목판화 운동 연구>, <장방 판화와 중국 목판화>, <민족미술의 재점검> 등의 논문이 있다.

절개해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방편으로 전개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거의 대다수가 동의하는데, 재밌는 것은 ‘지하화’나 ‘이거 무슨 병커냐’ 하는 얘기들은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하고, 설계변경까지 요구하는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누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생기고, 관제데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원됐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랜드마크가 뭔지 아세요?” 하고 물었더니 “랜드마크, 그게 뭔데?” 이러시더라고요. 광주 지역에 열세 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만, 관제데모 성격이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한 신문사는 이른바 메이저임을 자처한 신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중권 관제데모라고 한다면, 배후에 동원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경주 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 씨가 참석한 설명회나 관제데모에서 나온 주장을 들어보면, 거의 인신공격적인, “장사꾼 당신은 나가라” 이런 수준이고... 이걸 지상화해야만 동북아가 먹고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적 정합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청와대가 쟁점에 대해 직접 여론조사했다는 것을 제가 발설하는 이유는, 불편한 말씀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는 지역에 언론사가 열 개가 넘는 희한한 동네입니다. 저도 70년대 말에 한 2년 정도 광주의 한 신문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데요. 열 개가 넘는 지역일간지에서 어떤 광고비를 먹고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언론사의 사주들이나 모기업을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건설사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시대의 개발이데올로기 같은 망령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좌담 시작 전에 대규모 타워나 구겐하임미술관을 얘기하셨는데, 건축적 상징물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무등산 그 자체가 랜드마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정서적인 것이나 정신적 측면까지 고려한 것으로서의 랜드마크를 얘기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정합성이 있다거나 과연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나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심지역은 밀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광주에 안 계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새로 생긴 KT빌딩은 오히려 도청광장에서 무등산을 봤을 때 아주 고약하게 경관을 해

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어떤 쪽에서는 518미터 정도의 높은 탑을 세우자는 주장도 있었고, 상하이의 동방명주 타워보다 높게 세우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하이는 평면지대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결절점에 동방타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등산이라는 좋은 공간이 있는데, 굳이 흉물스럽게 높은 타워를 세우자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시민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당’인가 ‘문화발전소’인가

진중권 이필훈 선생님과 지형원 선생님께 각각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필훈 선생님, 건물들의 기능이 대부분 땅 아래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그 필연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계속 요구해왔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어떤 이유를 갖고 의견들이 기각이 됐는지요.

이필훈 우선 설계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면, 편파성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공모를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단체로 위임했습니다. UIA라고 공인된 세계건축가협회가 있습니다. 공인된 협회고 전세계의 유명한 설계들

은 대개 거기서 주관하죠. 공정성이 있으니까요. 프랑스에 가서 UIA를 통해서 공모를 진행했는데, 심사위원 일곱 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권이 걸린 문제니까 대개의 경우 외국 사람들을 더 많은 비율로 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도 외국위원 네 명, 한국위원 세 명으로 선정했고, 각종 위원회가 있어 그 과정도 다 오픈해서, UIA에서 투명하게 했죠.

인터넷을 통해서 전세계 건축가들한테 홍보하고 접수하고 한 게 저희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지명하는 방식 대신 모든 건축가들이 다 알도록 UIA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세계에 알렸고, 따로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모든 자료와 5·18 관련 사진 등등 다 첨부해서 알렸습니다. 그 지침에 꽤 자세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전당이 아니라 문화교류센터 개념으로. 문화 창조, 연구 및 아카이브, 컨벤션 센터가 아니라 아시아적 가치들이 실현되는 장소, 아트플렉스, 어린이박물관이라고 해서 어린이의 문화교육을 위한 공간, 이런 대여섯 개 정도의 기능이 그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공모를 진행했고, 당선 설계안뿐 아니라, 꽤 많은 안들이 지하설계로 제안되었습니다.

진중권 건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건 어떤 컨셉트입니까?

이필훈 시민사회 요구에 관련된 것들부터 먼저 말



“병커라는 그 단어가 무섭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도 사실은 ‘전당’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 시비가 붙었다고 봅니다. ‘전당’이라니까 예술적 공간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문화발전소’라고 했다면 어떤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과정을 진행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공청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건축가가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무슨 실이 몇 평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만들 수가 없죠. 시민공청회 전에는 정부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고, 의회에서 정책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건축가들은 숫자화 하는 것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시민공청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시에 사는 분들, 그 중에서 동구청에서는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100명 이상이 와서 지역에서 철거당하는 당사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5·18 단체하고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무엇까지 보존할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얘기해서 그것들을 프로그램에 다 반영한 것이거든요. 이미 건물 설계하기 이전에 프로그램 속에 시민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광주시민단체, 5·18 단체가 내걸었던 것은 분수대, 도청사, 상무관 등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물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분수대는 원형복원으로, 건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무관 역시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건물이니까요.

그런데 광주는 굉장히 밀집된 도시입니다. 무등산이 커다란, 말하자면 빈터구요. 도심 내에 빈터가 없어요. ‘상징성이 있는 도청사와 상무관이 있으니, 거기를 4만 3천 평이라는 큰 규모의 건물로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능을 밑으로 넣고 거기에 커다란 광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안이겠다’, ‘지금 있는 건물들의 역사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겠다’고 건축가들이 판단한 거죠. 아마 심사위원들도 거기에 동의할 한 것이고요. 제가 설계한 사람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그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번째로, 지하화할 때 분명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개념, 집을 어

이필훈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했으며,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연세대 첨단과학 기술연구관’,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피닉스파크 리조트’, ‘창동 금호빌라’ 등이 있다.



진중권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미학, 해석학, 언어철학을 공부하고 귀국 뒤 시사평론가 겸 미학자로 많은 활동을 했다. 2007년 현재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 <춤는 죽음>, <미학 오디세이 1, 2, 3>, <현대 미학강의>,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앙겔루스 노부스>, <호모 코레아니쿠스> 등이 있다.

가 생각하기에 깜깜한 밤중에도 땅 아래에서 빛들이 올라오는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지상에 있는 것보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건 앞으로 현대적인 기술로 해결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잘 해결된 것으로 명소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병커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 단어가 무섭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도 사실은 전당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 시비가 붙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 내보낼 때는 ‘culture complex’라고 했어요. ‘culture center’가 아니라. ‘전당’이라고 하면 예술적 공간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문화발전

“왜 이 컨셉트 자체가 브랜드, 랜드마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개발주의 위주로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지어야만 랜드마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미학적으로 낡은 생각은 아닌지요.”

소’라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미술관이나 오페라하우스보다, 그 발전소를 어떤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당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빌바오가 자꾸만 연상되고, 미술관이나 오페라하우스가 연상되는 것처럼, 병커라고 하면 마치 지하에 빛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연상됩니다. 말의 무서움인데요. 설계안 자체는 건축적으로 판단할 때, 병커나 지하공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진중권 그러면 지형원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훈데르트 바서라는 건축가가 지은 유치원을 보면, 위로는 집으로 올라가고 아래는 이렇게 내려가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컨셉트도 자연친화적이고요. 왜 이 컨셉트 자체가 브랜드, 랜드마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개발주의 위주의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짓는 것만이 랜드마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미학적으로 낡은 생각은 아닌지요.

이필훈 진중권 선생님 질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합도시 설계가 나왔습니다. 인공의 대지를 만들고 건물이 거꾸로 달려 있는 것인데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보다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이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취

한 지하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중권 두번째 질문은, 아까 관제데모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봐도 반대 의견이 대중 대다수의 의견이 아닐 수 있고, 또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형원 그 설문지를 저도 봤고 얘기도 들었는데, 설문은 사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제적 약속에 대한 신의 문제 때문에, 설사 중간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그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식이 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지하화 문제는, 현재 거기서 하려는 기능에 먼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용역보고서를 보면 현재 그 개념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했을 때, 1년에 700억 정도 적자입니다. 광주 지하철이 1년에 35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국가재정으로 1년에 700억 정도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데 불만이 우선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많은 부분이 수용되는 것에 지역적 불만이 큼니다. 현재 짓고 있는 아부다비 루브르나 아부다비 구겐하임이라든가, 지하에 있는 수중박물관이라든지 공연예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네 분이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일본도 롯폰기의 모리타워 바로 옆에 미드타운이라고 해서 54층 건물에 산토리 미술관이 들어오고 2만 명이 상주합니다. 아주 럭셔리한 일상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습니다. 333미터 높이의 동경타워가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가 610미터 높이로 하나 더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 출범에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빌바오뿐만 아니라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연합 쪽에서도 전부 지상화하면서 관광객 흡입 측면에서 기능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이런 시설과 기능들이 전혀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광주 5.18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흡입하고, 5.18을 인식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인데 그걸 이행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문화관광추진기획단과의 불화입니다. 많은 시민이 의견을 건넸는데, 수용과 토론을 통한 설득과정 없이 진행되었고, 그것에 관한 소외감이 지역전문가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

서 구청이나 시청이 그들의 의견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을 TFT로 구성해서 자체 계획서를 만들고,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수혜와 아시아문화허브, 그 간극

진중권 아무래도 전체 컨셉트 자체가, 사업 자체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김경주 이 사업이 정치적 수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광주 사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30여 년 동안 중앙집권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정치사회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의 결핍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장밋빛, 무지갯빛 희망을 정치적 수사로 던졌을 때 나타나게 된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속된 표현으로, ‘문화로 밥 먹고 살자’였고 이것이 캐치프레이즈로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의 경제발전을 문화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얘기들이 문화를 광의의 개념으로, 차세대 발전 동력으로 보기보다는, 지역사회 일부에다 혜택을 주는 개념으로 생성됐던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첫번째 문화산업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짓는 것보다는 별도의 문화산업단지를 3조 규모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이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열린우리당의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광주 현장은 민주당의 박광태 시장이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 한국정치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요소를 애당초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문화산업론에 관해 차분하고도 미래지향적인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접점찾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 자체도 큰 틀의 문화경제라는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현대사회의 문화상품이라는 것은 인적자원 중심의 노동집약 산업이지, 산업단지나 굴뚝이 생기는 것과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물류이동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이 문화상품인데, 무슨 단지 개념이 나오니까. 그것 역시 지난 시대의 개발논리라는 거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들이 과연 있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광주에 이를 테면,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화두와 함께 뭔가 수혜의식을 만들어내는 세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겠지요.

두번째 갈등은 주로 예술인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규모의 미술관을 지어라, 3천 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관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오페라 3천 석 규모로 하면, 저는 비전문가니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광주 회관 800석조차도 지역사회에서 그 공연공간을 충분히 메우는 내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 석 이상을 요구한다? 지난 시절의 문화적 양식만을 공연할 수밖에 없는 고정된 공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왜 자꾸 나오는 건지? 또 아시아문화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때, 서양식 공연보다는 난장이나 장터, 마당극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은데, 왜 가변형 공간의 아트플렉스를 거부하고 굳이 장르개념을 요구하는지. 이런 풍부한 논의 없이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규모를 전에 중앙초등학교 안에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전시될 내용이나 기획의 부분이지, 사실상 공간의 규모로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이 아닌 소위 지역의 문화전문가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것입니다. 독특한 폐쇄적인 사회에서 리더십을 보유했던 그룹이죠.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그러면 동경이나 파리에 있는 수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이어서 가는 걸까요? 현상적으로 1차적인 것이 담보가 되고, 서서히 21세기 새로운 콘텐츠로 이동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해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건 광주가 처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광주만의 수혜의식이 아니라, 문화가 경제유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돈 벌자, 이런 차원을 좀 뛰어넘어 열린 시각들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진중권 아까 전당을 말씀하셨는데, 전당하면 사실상 미술관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가 떠오르는 게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런 요구가 생기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문화개념이 굉장히 낡은 거잖아요. 21세기 들어서는 무대 자체도 가변적으로 변해가면서 비물질화되고, 공간과 시간이 흩어지거든요. 에듀컬처나 컬처테크놀로지로 가는 추세인데, 지역의 요구들이 전반적인 21세기 개념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형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문 닫아버린 밀레니엄돔 아시죠. 미래와 과거를 체험을 통해서 본다고 해

서 5천억인가를 들여서 지었다가 문 닫았던 사례를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과천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있지만 다시 서울 시내로 옮겨야 한다고 할 정도로 관람객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용이 부재해서 그렇죠. 지금 서울을 보면 언론사들이 여는 유명한 전시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지방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문화들을 찾다니며 향유하는 마인드가 확산되면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우리 좋은 것을 찾지 않고, 어느 신문사나 방송국이 빌려온 문화, 늘 책에서 봤던 것에 많이 휩쓸리고 가는 겁니다.

최근 9억 달러라고 하는 많은 돈을 프랑스 정부에 지불하고 50년 동안 루브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빌려가는 아부다비는, 그러면 그렇게 미래를 한 발자국도 내다보지 못하는 낡은 것입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고 흡입할 수 있는 매개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형원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미술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일보> 문화부장을 거쳐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광주비엔날레전시자문 위원, 광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 광주국제공연예술제집행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호남미술 300년>, <서양화가 양인옥론>, <남농회화의 특징> 등의 논문이 있다.

아까 3천 석 얘기를 했는데, 광주에는 1800석짜리 회관이 유일합니다. 하루 무대 설치하고 하루 공연하면 1년에 총 180일 밖에 사용 못합니다. 마치 가동률이 50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65일 가동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에서 좋은 뮤지컬 공연을 하고 싶어도, 절대 허가 못 받습니다. 공연하는 측은 30일 무대를 원하지만 광주에서는 이를 이상 공연 못하기 때문입니다. 1800석 중에서 오케스트라 박스를 빼버리고 나면 1720석인데, 대형공연물을 가져오면 1억 5천, 2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700석에서 1억 5천을 채우려면 모두 10만 원이나 20만 원 받아야 겨우 개런티를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의 경제규모로는 그 공연은 너무 비쌉니다. 경영 측면에서 많은 좌석이 확보되면 10만 원짜리를 4만 원에 함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천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10만 원이나 20만 원 공연을 3천 명이 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문화적 마인드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한 건 아닙니다. 좋은 공연을 한 번 갖고 오려고 하면 신문사가 적자를 봅니다. 광주일보가 여러 번 했는데 적자가 나요. 많은 협찬을 붙여야 하는데, 일반 이벤트사가 하려면 협찬이 안 붙어서 가격을 높여야 합니다. 관객흡입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있는 분관 혹은 그런 전용공간이 하나

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당놀이, 국악 프로그램은 거기에 맞는 규모로 차츰 차츰 세분화해나가야 합니다.

진중권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의 오페라단이 몇 개나 되죠?

지형원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광주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진중권 오페라단이 세 개가 있다구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서울에 오페라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형원 시립이 아니고, 시립은 돈이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민간오페라단이 있습니다.

진중권 그건 동네 리그구요. 제대로 된 시립이라든지 국립이라든지 그런 것들로요. 사실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짓는 것도 비현실적이에요. 한국에 오페라단이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공연할 수는 없고, 외국에서 불러오면 오페라 가수뿐 아니라 오케스트라까지 다 오는데요.

지형원 전용관이 아닌, 오페라 뮤지컬 다 할 수 있는...

이필훈 한 번 환기해보면 얼마나 무모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들어오면서 제일 싫었던 것이 문화중심도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문화에 과연 중심이 있습니까? 문화라는 건 다양한 가치가 있고, 민족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좀더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는 것이 문화고. 문화하는 사람들이 WTO 시장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성이나

민족성도 있기 때문에 ‘문화는 다양해져야 한다’는 논리 속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문화중심도시가 되면 정말 광주가 문화의 중심인 건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화 ‘소통’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시아적 문화가 여기 들어와서 체험되고, 우리 문화뿐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나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다 여기서 창조되고 소통되는, 터미널이나 허브의 역할을 아시아 전당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가 어디냐고 하면, 옛날부터 광주였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를 만들고 complex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통들도 발현되고 새로운 가치로 창조되고 재현되는 그런 공간이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오페라라는 것은 가장 서양적인 가치를 가진 문화행위잖아요. 퓨전된 아시아적 가치를 담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은, 자기가 어떤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만 듭니다.

저는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건축이 정치로 이용되어 망가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기 국회의사관 위에 돛 올라가 있는데, 그거 박정희 대통령

령이 둥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전에 설계 다 해놨다고 하더라도 정치세력, 절대권력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돛이 올라가야 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광장을 보고 와서는 우리도 광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광장을 만든 세월들이 우리 정치사, 건축사에 있었거든요. 건축가들이 능력이 없어서 나쁜 건물들을 만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건물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권력이 다핵화되어서, 예를 들어 중심세력으로 대통령 혼자만 있었으면 대통령 멋대로 건물을 짓겠죠. 그런데 권력이 다핵화되어서, 시민, 언론, 혹은 또 다른 권력, 이를 테면 문화권력, 예술권력이 나와서 자신들의 요구를 다 건물에 넣겠다고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아우성 같아요. 정말 이 집을 좋게 만들겠다는 논의로 여러 목소리가 나는 것은, 건축가가 그것들을 취해서 집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새로운 제안들이 있고 아우르면, 그래서 좋은 집이 된다면 얼마든지 수용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집 전체를 흔들며 버리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면, 결국 이 집은 30년 전에 그 집들이 여러 권력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랜드마크 논의도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배웠던 서양적인 가치와 관점으로 동

양적인 것을 재단하고 있어요. 랜드마크라는 말 자체도 영어잖아요. 도시에서 랜드마크가 중요하다고 그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케빈 린치라는 건축가입니다. 영역도 중요하고 도로도 중요하고, 지역 번두리도 중요하고 랜드마크도 중요하다는, 도시를 이루는 여러 이론 중 하나입니다. 랜드마크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도 사실 서양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랜드마크가 없었어요. 왕궁을 만들 때도 자연과 어울리게 만들었고, 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마당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에는 광장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재생하고 있는 것들이 광장이잖아요. 월드컵 때 사람들이 몰려서 만들었던 것이 도로를 광장화하고 서울역 앞을 광장화해서 광장들이 만들어졌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TV에서 동해물과 백두산 나올 때 고가도로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발전의 최대 랜드마크죠. 그걸 다 걷어냈잖아요. 물론 청계천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 구시대적인 랜드마크를 걷어내서 자연의 모습들을 살려내는 것이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시민의 이름으로 구시대적 가치, 혹은 서양 중심적 가치를 제안하고, 자꾸만 어떤 권력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자꾸만 치환해내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

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 사실 두바이 같은 경우도 서양사람들은 그걸 보고 몰취향이라고 비웃고 있잖습니까.

이필훈 두바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광주, 어떤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담을 것인가

진중권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700억이 적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계획은 진행 중이잖아요.

지형원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광주는 서울과 KTX로 두 시간 반, 세 시간 정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 130, 140만인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공간에 그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도시생산성 유발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면, 아시아인들이 많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시아 문화 전문가 내지 관련 전문가들이 안 올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자료, 아이디어,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면 올 것입니다. 대다수의 일반 시민, 대중,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창경원을 가고 미술관을 가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아시아인들이 와서 광주의 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문제에 광주 시민이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경에 있는 공무원에게 5박 6일의 무료 여행을 주면서, 대한민국 광주를 갈 것인지, 파리를 갈 것인지, 두바이를 갈 것인지 했을 때 과연 그 사람

이 아시아중심도시라는 광주를 찾아올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뭐 물론 광주에 올 사람도 있겠습니까만. 많은 사람들이 광주가 아닌 서울이나 상하이 나 다른 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필훈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제일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광주 분들의 욕구를 저도 알고,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옛날 광주 일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가슴 아픈 것도 있고, 늦게라도 광주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여러 의미를 가졌습니다. 물론 건축이 사회를 변혁시키지는 못하지만, 건축이 사회변혁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술관이나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서 광주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빌바오를 계속 얘기하셨지만, 그에 앞서 도시개혁 프로그램이 있었고, 구겐하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건물 자체가 재밌지만, 그 뒤에는 구겐하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문화정책이 있는 거죠. 구겐하임미술관을 짓는 예는 그전에 없었습니다. 빌바오가 만들어낸 새로운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카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광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 것인가 하는 진지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안하는 방식들이 새로운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지, 얼마나 광주 시민에게 도움을 줄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에 관여하는데, 거기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담으려고 합니다. 과별로 공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과를 융합시켜서 가르치고, 외부학교를 불러와서 joint university를 만들고, R&D로 산학협력을 만듭니다. 대학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법대에는 몇 천 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어야 하고, 의대는 적어도 어떤 높이의 건물이라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공부해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옛날의 가치로 자르고 재단하고 거기다 그것을 희석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지형원 두렵다는 이야기죠.

김경주 경제유발을 시설이나 공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문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시설이나 공간을 두고 낮은 차원에서 공방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비전에 대한 시도도 못 해보게 됩니다. 광주에 이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수혜의식이 아니라 큰 숙제가 떨어졌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라는 데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도시, 한 공간이 문화화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람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상 한국사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들입니다. 대학 같은 경우도 분과학문체제가 굳어져서 학제간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문화영역에서는 매우 통합적 시각을 갖고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실험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선 지금 시설이나 공간, 이런 부분들이 관광유발 효과를 불러와서 관광객들이 돈을 떨구고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앞세우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외국의 사례를 들먹거리게 되는데요. 지난 사회의 방식으로 단지를 만들고, 시설을 투자하고, 문

화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 자체는 망상 수준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토양을 1차적으로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광주라고 하는 전남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개발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광주에 남아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 시민이 겪었던 5월의 기억은 높은 자기절제력과 도덕성을 담보하고 있고, 또 전남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서구적 잣대에 의해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적 가치를 재발견해서 재구성하는 일정한 프로세스를 준비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남권에서야 광주가 중심이지만, 서울에 비하면 당연히 변방이고, 마찬가지로 서울이 중심이지만 북경이나 뉴욕이나 동경에

비하면 당연히 변방인데요. 이런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일종의 격자 그리드에 넣었던 서양식 분과학문체제랄지 그런 틀거리 속에서 문화를 재단하는 때늦은 시각을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현상화되지는 않았지만 광주에는 자연적으로 매우 프렉틸한 환경을 지니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고 살았던 내재적인 감수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새롭게 문화적 알고리즘으로 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관계에 대한 따뜻함 등,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지, 시설이나 공간을 두고 낮은 차원에서 공방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비전에 대한 시도도 못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광주에 이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이건 뭐 수혜의식이 아니라 큰 숙제

가 떨어졌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커뮤니티 문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뺀 얘기들이 횡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랜드마크나 이런 시설공간의 문제에 앞서 훨씬 본질적인 문제들, 지역사회가 갖는 장기적인 발전전략이라든가 교육문제가 먼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행위를 창조하는 인큐베이터로

진중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죠. 리움도 장 누벨부터 가장 잘 나가는 건축가 셋이 지었는데, 건물 보러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앤디 워홀 전시를 하니까 가는 거란 말이죠. 결국 컨텐츠의 문제죠. 이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서를 봤는데요, 과연 광주라는 지역에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요.

김경주 그 점에 있어서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콘텐츠 생산기지여야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설이랄지 자원이랄지, 거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라고 하는 곳이 역설적으로 훨씬 덜 왜곡되고 덜 손상된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일종의 문화적 상품 생산이나, 중간재로서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방식조차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새로운 차원의 아카이브랄지, 일종의 지식박물관이랄지, 이런 문화적 발전소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차원의 많은 가능성을 갖는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교육이라고 봅니다. 공연물 하나를 아주 감동적으로 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광주사회에 독특하게 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정교하게 그것들을 콘텐츠화해내는 부분들에 대한 과정의 확보가 이뤄져야겠지요. 지금껏 어느 지역사회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가 그 일을 하

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진중권 그럼 지형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건물 보려고 광주에 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하우스도 그렇죠. 그래도 광주비엔날레라도 하나까 찾아갑니다. 문제는 콘텐츠인데, 랜드마크가 있으면 관광객이 우르르 몰려온다고 하시는데요.

지형원 그건 1차적인 흡입이고, 영구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갖고 해야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충해야 할 일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과제가 있지 않겠어요? MIT 공대의 마크 슈스터 교수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 도심의 문화발전소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더라, 미술관과 박물관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라, 그 다음에 문화산업의 문제로 확산되더라. 1차적으로 사람을 끌어오는 데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면세의 개념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물건을 사는 데 2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광주에서는 1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런 메리트가 주어진 공간이라면, 광주에 올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화면세점이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인천에 있는 국제터미널처럼,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상시 광주에 들락날락하면서 문화도 살 수 있고, 다른 상품도 살 수 있는 공간을 광주 시민은 기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그것과 별개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고, 시민을 설득하면서 소통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불만이 커진 겁니다. 콘텐츠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우리가 기필코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좌담 석상에서 콘텐츠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우문인 것 같습니다. 우답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중권 지금은 미술관 자체도 전통적인 미술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미디어화되고, 오페라하우스는 몇백 년 전부터는 지어지지 않고 있죠.

지형원 그러면 동경에 있는 수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파리의 박물관은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지식인들은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현상적으로 1차적인 것이 담보가 되고, 서서히 21세기 새로운 콘텐츠로 이동해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필훈 반대로 생각하면 콘텐츠를 담을 공간이 필요했겠죠. 예를 들어, 일본은 아시아에서 여러 물건들을 약탈해와서 담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박물관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유물들을 식민지에서 갖고 왔으니까. 놓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지금 서울시가 만든 국립박물관에 벌써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박물관 자체로서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같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지금 세대의 프랑스나 일본에서 이미 박물관에 넣을 것 다 넣고 또 짓겠느냐, 하면 안 지을 것 같아요. 1900년대에 일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할당으로 각 지역마다 몇 퍼센트, 국민 대비 면적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이 그 데이터를 갖고 또 건물을 짓는다면, 옛날과 똑같이 가부키극장이나 영화관을 짓겠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방식의 문화 complex를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어른들이 텔레비전 없을 때 갔던 영화공간이나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문화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퍼센트를 채우는, 공간의 규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먼저 필요 합니다.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얘기하면서도 그 이전에 있던 시설들이 여전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광주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아시아적 가치를 가진 새로운 공간입니다. 이 건물 하나가 아니라, 이 건물이 발전소가 되어서 광주 전체가 문화도시로 바뀌길 바라는 것이고, 네트워크



“저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만 사람이 몰려 있는데, 예술인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팩토리가 되어 그 역할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저는 내려온다고 봅니다.”



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창조적인 작업공간, 연구공간, 외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만 사람이 몰려 있고 안 내려오는데, 예술인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팩토리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저는 내려온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음악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광주가 음악이 발달했던 도시니까, 부산이 영화의 도시라면 광주는 음악적인 아시아 아카이브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해서 레지던스 및 교육프로그램

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정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실현하고 만들어내면 분명 창조적인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런 소모적인 논의가 아니라.

건물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건물은 커다란 블랙박스 같습니다. 최근에 세워진 어떤 건물 이름이 실제로 블랙박스입니다. 바닥이나 무대가 따로 없습니다. 독일에 그런 아트플렉스가 있어요. 아무데서나 연극하고,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커다란 블랙박스인 거죠. 그리고 천장 어디에서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화행위라는 것은 퓨전되어 있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행위로 불거져 나올 텐데, 그것을

크화 되길 바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점이라는 것이 결국 그걸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공간이 되어야지, 옛날에 있던 것들을 보존하고 전시하고 그것을 공연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형원 1차로 문화도시를 만들고 나서, 지금 추진 기획단이 말하고 있는 것을 2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적자가 나고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1차적인 것에서 창출된 부를 갖고 계속해서 2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함, 실험적인 것에 대한 불확신, 체험적 공간이 실패했던 사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광주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큰 부담으로 봅니다.

진중권 오스트리아 린츠라는 곳에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는 전시회를 열거든요. 전시공

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들도 대부분 CD형태로 오고요. 그래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 오히려 중요한 건 무형화된 콘텐츠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광주가 문화거점도시가 되려면 미래를 지향해야지 과거의 것을 답습하면 되겠습니까.

지형원 거기에 동의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지금 충무로에서 제작했던 영화 시스템이 부산에 가 있습니까? 국제영화제 기간에만 부산에 가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 서울 충무로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조건을 통해서 부산을 엄청난 아시아의 영화 도시로 육성해냈지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필훈 그걸 서로 마주 앉아서 개발해야 합니다. 레지던스의 개념이 생겨야죠. 새로운 예술

답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지 선생님께서 컨벤션한 문화행위를 답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꾸로 서울에도 새로운 퓨전된 문화 행위를 답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만화영화와 연극이 함께 상영되는데, 만화영화를 틀면서 동시에 연극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새로운 행위는 계속 벌어지는데,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은 없는 겁니다. 어디서든 그런 공간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광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지하고 있다면, 분명 사람들이 광주로 내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시나가와라는 조그만 도시에는 초가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옛날 방식대로 삽니다. 시냇물을 화장실로 쓰는데 깨끗한 물이 돼요. 그 마을 보러 사람들이 수도 없이 갑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면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갑니다. 광주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때까지 있던 것들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행위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그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형원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 공간,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무



등산 한 자락이나 충효동이나 그런 공간에서 한다면 이렇게까지 시민이 의견이 나뉘진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시민이 과연 그걸 향유하려 얼마나 갈 것인가를 걱정하는 겁니다. 연구와 교육기능은 대학으로 과감하게 아웃소싱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은 향유 중심으로 종합계획서를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능이 바뀌면 설계문제는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김경주 복합적인 문화공간에서 연구와 교육기능을 아웃소싱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대학이 분과 학문체제로 나뉘어, 맞춤형 용역생산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실험적이고 통합적인 것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곤란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개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대학에 아웃소싱한다는 건 별로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실패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개념을 시도해보려는 일련의 입장과 배치되는, 광주 지역사회에서 낡은 문화 개념을 갖고 있는 리더십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이 논란의 해결이 매우 어렵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더이상 얘기해봤자 역시 그 배경에는 그간에 일종의 폐쇄적 공간 안에서 작동하던 리더십 문제가 좋지 않은 문화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낡은 문화관을 보면, 도대체 자기학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상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 공간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무등산 한 자락이나 충효동이나 그런 공간에서 한다면 이렇게까지 시민이 의견이 나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한다기보다 시민이 과연 그걸 향유하려 얼마나 갈 것인가를 걱정하는 겁니다.”

식 있는 일반 시민은 새로운 개념의 대안적 문화를 생산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 얘기, 교육 얘기 백 번 한들 뭐합니까. 아마 짐작컨대 한국정치지형에서, 대선정국이 되면, 광주는 또 매우 독특한 기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만, 그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일반 시민도 자기학습 능력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이 사실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시민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누구를 시민이라고 팔면서 얘기하는지, 이면에 갖고 있던 이해득실의 계산은 어떤 것인지 등을 말입니다.

취향에 따른 판단보다는 미래의 문화환경을

진중권 서서히 마무리를 하죠.

이필훈 아까 빌바오 얘기하셨는데, 외국의 유명한 프로젝트들은 건축가를 섭외하기 위해 시작부터 예산을 안 잡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잡아놨다가 건축가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건축가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설계가 끝나면 견적을 내서 공사비로 잡습니다. 만약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공사비를 얼마로 예상해놨는데, 건축가가 두 배 정도로 해놓으면 감옥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설계가 건축법에 안 맞으면 특별구역으로 정해서 법을 바꿔 수용해주는 방식으로까지 합니다. 문화작품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화환경이죠.

정말 우리가 문화적인 건물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심각합니다. 문화적인 집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합의합니다. 정치권, 예술분야, 시민까지 다 모아서 집을 가질만한 자격이 있을 때, 그 집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이 자격 없으면 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시대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시대의 거울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독재체제가 만들어냈던 집이 수없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의식화되고 민주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지



금 일어나는 양태가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서 결국 똑같이 되어버린다면... 집을 집담게 만들어내는 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결국 그 집이 시대의 거울이라면, 우리가 훼손되지 않는 집을 만들어내는 데 어떤 자리에 있든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형원 광주 시민으로서 그 말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문광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시민을 감동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이것이 미래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는 감동 부분인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앉아 있으면서 행했던 많은 사례들 중에 오히려 더 퇴보적이고 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광주사회에서 진행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상당히 큼니다. 어떻게든지 건축설계가 되어서 공모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빌바오를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거기는 기능을 정해놨어요. 미술관을 지어달라, 공연장을 지어달라, 아니면 뭘 지어달라고 시민적 합의와 국가적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맡겼어요. 우리는 그 기능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한 시

민으로서, 문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너무 실험적인 입장을 펼쳤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입장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필훈 처음 랜드마크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에펠탑을 지을 때 대중뿐 아니라 예술가들도 다 욕했습니다. 건축가라는 것은 이 집을 지으면 싫으나 좋으나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그 직업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함부로 빨간색을 못 쓰고, 미술과는 달리 간색을 많이 씁니다. 형태가 아주 독특하고 튀는 집을 가능한 자제합니다. 빌바오를 설계한 프랭크 게리는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같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 그런 엄정함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안을 할 때 현재의 시민에게 맞게 설계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현재 시민의 눈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축가들은 앞으로도 좋을지, 시민의 자식들도 좋을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합니다. 그것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좋은 건축가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문화행위를 하는 선도성에 대해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싫을 수는 있습니

다. 전혀 취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그리고 뽑은 사람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어떤 것을 뽑아낼 만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면, 내가 싫은 집이 뽑히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뒤집어엮는 것은, 저는 시민의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광주 시민이 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를 바라보는 눈도 있고, 또 학습효과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서, 다른 전문가들이 시민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주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맨 처음 기본 구상을 같이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선 생님은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었다', '기획단이 일부 편향된 논리와 자기 고집대로 가버렸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일단 정치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까지 여러 설명회, 공청회가 적어도 140회 이상 진행됐습니다. 외국작가들과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이랄지, 교육프로그램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여러 일련의 일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매우 생산

적이지 못한 쪽으로 쟁점이 떠오르는 저변의 이유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지형상의 일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광주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요.

군대 다녀온 것을 빼고는 계속 광주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정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3년 정도 지나니까 상당수 일반인의 인식의 수준 매우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최근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역의 문화전문가라고 하거나, 정치권력이 있거나,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작위의 시민 다수를 두고 하는 소립니다. 적어도 600명 이상의 표본이라는 건 상당히 신뢰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진중권 일단 오늘 랜드마크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바라보는 두 관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봤습니다. 갈등의 배경들,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다른 여러 배경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이뤄졌던 소통의 혼란까지 많은 이야기를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판단은 독자들이 읽어보고 할 것입니다. 오늘 좌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